60만 돌파 '전남사랑愛서포터즈' 100만명 달성 속도낸다

6일 기준 60만8천명 기록…3년1개월만

고향사랑기부 선착순 1천명 햅쌀 증정

전남도가 지역소멸 극복과 지역 관광 활성화,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자가 첫 모집 이후 3년1개월 만에 60만명을 돌파하면서 목표치인 100만명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자 수는 60만8천648명으로 집계됐다.

민선 8기 전남도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저출산·고령화·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자에게는 지역 관광지, 숙박, 음식점, 전통시장 등 할인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남사랑도민증'이 발급된다.

2022년 9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전남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00만명 모집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30만명, 같은 해 9월 40만명, 2024년 7월 50만명, 올해 10월 60만명을 순차적으로 돌파하며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서포터즈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 가맹점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59개소에 불과하던 도내 할인 가맹점 수는 지난 10월 기준 846개소까지 확대됐다.

전남도는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60만명 돌파를 기념해 11월 한 달간 전남산 햅쌀을 증정하는 고향사랑기부제 감사 이벤트를 추진한다.

오는 30일까지 전남도청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답례품 후기를 작성한 선착순 1천명에게 전남 햅쌀 4㎏을 추가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는 전남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후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60만명은 전남의 한 가족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든든한 동반자"라며 "고향을 향한 마음이 모여 지역을 살리고 그 따뜻함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나눔의 선순환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개관 90주년 광주극장 영화제 찾은 봉준호 감독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봉준호 감독이 지난 8일 광주 동구 충장로 광주극장에서 열린 '개관 90주년 광주극장 영화제'를 찾아 박태규 화백이 그린 영화 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형수 광주극장 전무, 봉준호 감독, 박태규 화백) 광주극장은 이날 봉 감독과 시네토크를 비롯해 10기 영화간판 학교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연합뉴스

전남 9개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국비 629억 확보…정주여건 개선

전남도는 9일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전국 34개소 중 전남 9개소가 선정돼 898억원(국비 62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선정 규모의 약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남도의 해양정책 추진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선정 사업지는 여수 두포항, 순천 대대항, 고흥 남열항, 강진 수인항, 해남 학가항, 무안 도원항, 영광 월곡항, 완도 금일관문권역, 신안 상태도항 등 총 9개소다.

각 지역에는 최대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어촌의 열악한 생활·안전 인프라와 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남에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개소가 해당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천241억원을 유치했다. 이번 9개소를 포함,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낙후된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열악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전남 어촌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보건환경硏 "독감 주의하세요"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9일 "최근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인플루엔자(독감) 발생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감염 예방에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청과 공동 수행하는 호흡기바이러스 감시사업(K-RISS) 결과, 올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첫 검출 시점은 45주차(11월2-8일)로 전년 42주차(10월13-19일)보다 다소 늦었지만 검출률은 7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모두 A(H3N2)형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김재정 기자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오늘부터 20% 할인

기존 10% 할인에 광주시 10% 추가환급

올해 말까지…회차별 1인당 최대 2만원

광주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행사'를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7주 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비환원형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행사 기간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누적 결제 금액 1만원 이상을 사용한 소비자는 사용 금액의 1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회차별로 1인 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10% 기본 할인에, 광주시의 10% 환급 지원이 더해져 최대 2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환급은 결제 금액 1만원 이상부터 1천원 단위로 적용(1천원 미만 절사)되며 각 회차 종료 후 약 10일 뒤부터 디지털온누리 앱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 지급된다.

행사는 총 7회 차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회 차로 정해 진행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소비자 환급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재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환급 행사가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늘어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골목상권현장지원단 운영 등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원에 힘쓴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골목형 상점가가 580개소로 늘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2만8천377곳으로 확대됐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배달음식점 등 130곳 불시 위생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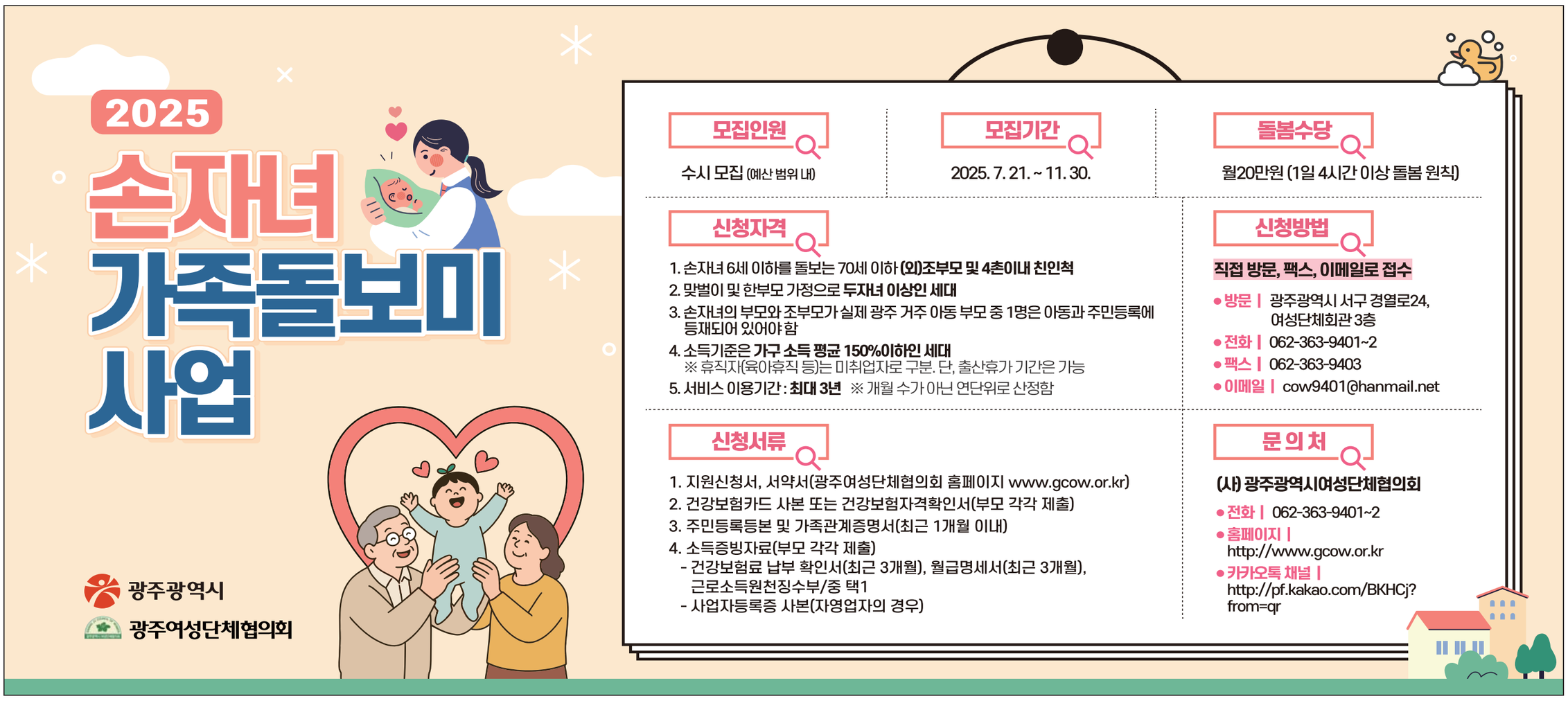
광주시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14일 지역 배달음식점과 공유주방운영업 등 13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계절별 다소비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올해 1분기 햄버거, 2분기 빙수·커피류, 3분기 삼계탕·냉면에 이어, 4분기에는 찜·탕·찌개류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5개 점검반 20명을 투입해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배달·포장 전문 음식점과 공유주방 운영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조리시설 청결 유지 여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깨지거나 오염된 달걀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공유주방운영업은 출입·시설 사용 기록 보관(6개월), 위생관리 책임자·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김치찜, 해물탕, 된장찌개 등 조리식품을 수거해 미생물 검사를 병행하며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변은진 기자